



宗訓

- 1. 崇祖 精神의 高揚
- 2. 宗族 和睦의 勵行
-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 順天金氏宗報

제 49 호 2006. 8. 15 (수)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 김종식/ 편집인: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전화: (02)400-2501 ~2502/FAX: (02)400-2505

## 順天金門 大學生 夏季 教養講座

### 뿌리를 찾아 보학의 전당으로 운집한 대학생들



순천김문 중앙 종친회의 연례행사인 제21기 대학생 하계 교양강좌(6월28일~30일) 2박3일 동안 시조 묘역 동원재 가락당에서 종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고문, 지역 종친회 및 파종회 회장과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종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양강좌를 이수한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각자 문중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내실을 기하고 서로 친목을 다지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강사진으로는 김승연 교수(한밭대학)의 주관 아래 최인선 교수(순천대학 사학과)의 순천지역 역사와 배경, 김종웅 원장(여수문화원)이 김종의 성환신 추앙의 배경, 김영희 고문(중앙종친회)의 성철스님 주례사(유인물), 김동영 원장(석호서예원)의 예절과 현대인의 자세, 김인섭(부산 종친회) 관훈상례 음악의 적용, 김상윤씨의 족보보기, 김동성씨의 팔천이군 김여물 장군, 김광연씨의 일상생활과 예절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어서 전남 해남 소재 삼상사 참배와 삼상사적비 제막식 참관 후 2박3일 일정을 모두 마쳤다.



우리 방춘서원은 이조 속증 24년 1698년 장능전례의 부설로 가묘설치 월당 양경공 승주 조 절제 종서 조배향

## 방춘서원 주변 정리 사업

서기 1771년 이조시대 영조 47년(1746 영조 22년) 절제 종서 조의복관으로 본군 유림들로부터 세웠으며 이조 22대 정조 8년 서기 1784년 복저 유 조를 추배하면서 사우명을 삼상사로 이름지어 매년 음 3월 7일 제향을 모시었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회철되었으나 기호의 사림 167인이 조정에 호소하여 단으로 향배하다가 1919년에 단소의 위치에 사우를 중건 방춘서원으로 개칭하였다.

방춘서원 경내에 소재한 방춘정은 이조 22대 정조 8년 1784년 건립하여 순천김씨 후손들의 강학소로 사용하다가 중국에는 이곳 향토의 교육 수도장으로 발전하여 오던 중 모든 학술적인 여건이 문화재 가치로 인정받아 전라남도 문화재 209호로 지정되어 2006년도에 일차로 도비 7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 지부담 5백만원등 총 1억 5백만원으로 문화재 삼진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 설계도 완성 문화재 건설

회사인 우보건설 회사와 계약 2006년 4월 6일 착공 약 3개월에 걸쳐 완공함에 있어 김종식 순천김씨 중앙종친회장님께서 순천김씨 삼상사적비 수립하셨고 우보건설의 많은 협조하에 삼상사적비 제막식과 방춘서원 주변정리사업을 완공 한결 정결한 모습으로 정비하여 2006년 6월 30일 중앙종친회장님을 비롯 임원진과 하계강좌에 참여한 대학생 및 향리 종친들의 많은 참여 속에 준공식을 가졌으며 향우 방춘서원 의심문 7간을 이설 개축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 8월 일

방춘서원 발유사  
김 정 태

## 中央宗親會 第17期 定期總會 開催公告

會則 第12條 1項에 依據 2006年度 定期總會를 下記와 같이 開催함을 公告합니다.

- 下 記 -

- 1. 日 時 : 2006年 11月 20日 15時
- 2. 場 所 : 全南 順天市 주암면 참촌리(同原齋 嘉樂堂)
- 3. 參席範圍 : 中央宗親會 任職員 및 代議員
- 4. 案 件
  - 1) 業務報告
  - 2) 第16期 歲入 歲出 決算(案)

- 3) 第17期 歲入 歲出 決算(案)
- 4) 기타 事項

※ 地域 宗親會 會長과 派宗會 會長은 任員들에게 連絡하여 全員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달 21日은 始祖 秋享祭입니다.

2006年 8月 21日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會長 金 鍾 植

公 告



# 同源齋 外三門 上樑式 舉行

2006年 丙戌年 8月 3日 15時(陰 7月 10日 甲子日 申時)에 相容 常任副會長 主管아래 宗親들과 來賓들이 參席한 가운데 敬虔하고 嚴肅하게 上樑式을 舉行하였다.

이날 相容 常任副會長은 都評수를 비롯한 人夫들에게 金一封을 傳達하고 激勵하였다.



## 上樑文

그윽히 생각하온대 우리 金門의 貫鄉은 順天이요 始祖이신 平陽君 諱 撻께서는 그 옛날 順天(昇平)으로 나가시어 그 고장에 侵入 하여 掠奪과 行悖를 恣行하는 外寇를 掃蕩하시고, 德으로 政事를 펴시어 民生을 便케 하셨지요. 公께서 作故하시자 그곳 百姓들은 公의 影幀을 進禮山에 모시고 그곳의 守護神인 城隍神으로 받들었고 高麗와 朝鮮朝에서도, 春秋로 祭享을 올렸었지요.

근 千年이 지난 18世紀 末葉 그 곳 鄉儒 趙顯範은 進禮山을 바라보고 "公의 蔭德은 后世에까지 傳해지고 있다"고 하고 "많은 文武賢臣들은 저 進禮山을 아니보았는가"라고 舊發을 促求하는 글을 그의 文集 江南樂府에 실고 있다.

倭政 初에 祠堂이 毀撤된지 근 百年이 지난 오늘날 그 곳 住民들은 公을 欽慕하여 十餘年前부터 靈鷲山(당시 進禮山)에 壇所를 造成하고 每年 寒食節이면 公을 靈鷲山神으로 받들고 舉市的으로 祭享을 지내며 고장 安寧과 繁榮을 기원하고 있으니 感慨無量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后孫들 어찌 公을 崇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自古로 公卿 碩儒가 끊이지 않고 輩出되어 우리 金門이 名門 華閥로 세상에 우뚝서게된것 또한 公의 蔭德이 아니겠는가.

오랜 歲月이 흘러 公의 墳墓 外三門이 頹落하여 遺憾之事로 지내오다 그동안 39世孫 鍾植 (中央會長)의 刻苦의 努力과 40世孫 升淵의 精誠어린 巨金의 獻誠으로 本 三門의 重建과 影堂 및 同源齋의 丹青 그리고 담장의 改修등 大工事を 施行하게 되어 42世孫 相容을 工事都監으로 委屬하고 丙戌(2006年) 6月 12日 着工하여 오늘 本 三門 上樑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慶事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 일을 도울 겸 俗되지만 敢히 上樑詞를 적어 본다.

어영차! 東쪽으로 추적이니  
右白虎의 푸른 竹林 바람결에 살랑이고  
햇빛 받은 蓮塘물은 아름답게 반짝이네

어영차! 南쪽으로 추적이니  
시냇물은 흘러 흘러 굽이굽이 끊어 없고  
高速道の 車輛行列 豐饒신고 疾走하네

어영차! 西쪽으로 추적이니  
左靑龍의 힘찬 모습 즐기치게 뻗어있고  
하늘높이 솟아있는 푸른 松林 일렁이네

어영차! 北쪽으로 추적이니  
始祖府君 잠든幽宅 依然하게 자리하고  
그 모습이 莊重하여 肅然하게 머리숙네

어영차! 위쪽으로 추적이니  
흰 구름이 뭉게뭉게 여기저기 동실대고  
밝은 햇님 범글범글 웃음 짓고 祝福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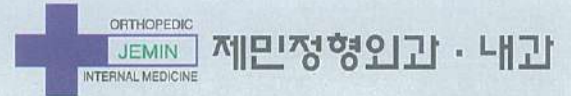
어영차! 아래쪽에 추적이니  
세멘트의 바닥基礎 鞏固하게 다져졌고  
重建되는 外三門은 그 榮光이 無窮하리

天地神明이시어 삼가 願하옵건데 古建築의 規例에 따라 築造하고 있는 本 三門이 上樑后 竣工이 되면 永久히 빛나는 建造物로 남게 하시고 萬百姓이 이 門을 자연스레 出入하여 始祖府君 欽慕하고 宗族和睦 더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이 고을의 民生은 福을 받고 風俗은 아름답게 되도록 瑞氣 내려주소서.

丙戌(2006年) 月 日

38世孫 明在 삼가 씀.



JAE MIN Orthopedic & Internal Medicine



정형외과 원장 / 김진호  
정형외과 전문의, 인제대학교 백병원 외래교수

▶ 학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의학사),  
인제대학교 대학원(의학석사)

▶ 면허 및 자격  
의사면허(제47750호), 정형외과전문의자격(제3641호)

▶ 경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인제대학교 부속 명동 백병원 정형외과 수료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의사협회 증식치료 교육 이수  
대한IMS학회 IMS 교육 이수  
메조세라피(Mesotherapy) 교육이수  
대한정형외과학회 TPI 교육 이수  
대한정형외과학회 관절염 홍보 위원  
메조세라피(Mesotherapy) 교육이수  
대한정형외과학회 TPI 교육 이수  
대한정형외과학회 관절염 홍보 위원  
도봉구 정병원 정형외과 과장 역임  
제민정형외과내과의원 개원, 정형외과원장  
현 - 인제대학교 부속 상계백병원 외래강사, 노원구 의사회 재무이사, 노원구 청년이사회 봉사이사

내과 원장 / 조문숙  
(전)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교수, 내분비분과전문의

▶ 학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의학사)  
인제대학교 대학원(의학석사)  
인제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졸업

▶ 면허 및 자격  
의사면허(제47715호), 내과전문의자격(제6021호)  
당뇨병교육자 자격인정증(제 1-238호)  
내분비분과 전문의(제4-02-239호)

▶ 경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전공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 임상강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 전임강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 조교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퇴직  
조문숙 내과 개원  
제민정형외과내과의원 개원, 내과원장  
현 - 대한내분비학회 평생회원, 당뇨병학회 평생회원, 대한내과학회 평생회원, 백병원 외래교수, 당뇨병교육자인정의

※ 宗親來院 特別禮遇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1305번지 동양아파트 단지상가 3층 301호 302호 TEL : 936-6390, 9390 / FAX : 937-8390

# 贈 通政大夫 潤자業公의 碑 改修후 感謝牌 전달

지난 2006년 7월 21일 (6월 6일) 순천 김씨35세손 즉 양경공 13대손 潤자業公의 碑石을 改修하였다. 潤자業公은 해남 落鄉祖 남은공 孝子友의 9대손으로 현재

祖父 時子敬 父 美자直 3대가 連葬되어 山下 隱德齋에 配享하고 있으며 1744년 英廟 갑자 10월 22일에 壽卒하시어 通政大夫 寺僕寺正을 증작 받았으나 그간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풍우에 훼손되고 上系代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 門任 相允 이하 門中一同이 항상 이를 안타까워 하던 중 중앙종친회 상임 부회장이신 相容 族弟가 私財를 투척하여 웅장한 새로운 비석으로 개수 挺立하였기에 黃山派 문중 남아 30여명이 모여 이를 축하하는 성대한 행사를 갖고 門中 일동명의 로 相容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2006. 7. .

양경공20대손 黃山派 門中

金 相 默 씬

## 아름다운 獻誠

지난 8월 11일 尙衣院正公派宗會의 金東學會長님께서 동회 총무 商珉 종친을 대동하고 본회에 내방하여 본회 회장님과 담소한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東學會長님 말씀이 “도문화재인 始祖府君의 오손된 영정(影幀)을 복원하여 새로이 봉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아 中央宗親會에서 걱정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어 지난 8월 5일 성남시 여수동에서 개최한 저의 임시 총회에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尙衣院正公 유제(?)중에서 찬조해 줌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하였던바 참석한 전회원이 뜻 깊은 일이라며 흔쾌히 찬동하여 의결한 바 있어 그 헌성금을 가지고 왔노라”며 금일봉(일천만원)을 내 놓으셨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始祖府君께 효도하시는 일 같아 나도 모르게 숙연해 졌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 이겠습니까.

< 편집자 >

## 孔子任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重要한 것은 어진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던 孔子任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즉, 남의 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自身이 모시는 어른을 홍보

는 사람, 勇氣는 있지만 禮儀가 바르지 못한 사람, 果敢하기는 하지만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고 傳해진다. 참으로 當然한 말씀이다. 相對方의 허물을 따져서 무얼 하겠는가. 좋은 點을 찾아서 키워주기도 바쁜 世上인데 굳이 허물을 들추어 말해 준다고 고마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다.

가람있이 솔았더러 바스락 거린다고 흥분하는 俗談도 있지 않는가. 自己의 허물을 生覺지 않고 도리어 남의 허물만 나무란다는 뜻이라. 너와 내가 같을 수도 없는데 내 눈에 다르게 비친다고 해서 이런저런 일을 허물로 生覺하지는 말자. 서로의 價値관이 다르다고 趣向이 다른데 어찌 내 맘과 같기를 바라겠는가.

그리고 가까이 모시는 어른에 대해서는 自身이 第一 잘 안다고 生覺할 수 있었으나 사람의 깊은 속을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 모시는 어른을 홍보는 일은 絶對로 옳은 일이 아니다.

언젠가 自身이 모시는 사람을 爲해 每日 아침 祈禱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말인 즉 不足한 나를 認定해 주고 키워 주었으니 바로 恩人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因果應報의 哲學을 터득한 結果임에 믿음으로 뒷사람을 대하는 그를 보고 있으며 마음

이 따뜻해지곤 하였다. 勇氣 있는 사람은 敵이라 할지라도 나는 尊敬 한다는 나폴레옹 1세의 말이 있다. 勇氣 하나로 하루아침에 急成長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感歎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하는 높은 줄 모르고 으스대는 그들을 보고 있으면 왜 그리 危殆로운지 驕慢에 가까운 行動 때문에 그들의 勇氣가 빛을 잃어버릴까봐 안절부절 못할 때도 間或 있다. 自己의 잘못을 감추어가며 남의 功績을 마치 自己 몫으로 돌리려는 奸惡한 手法역시 그릇된 勇氣와 無知의 驕慢에 偶를 犯하는 例이다. 살아가는 일이란 勇氣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知慧로 터득했으면 좋으련만.....

마음은 팔고 사지는 못 하지만 누구에게라도 限없이 줄 수 있는 財産이다. 아무리 퍼내고 즐지 않는 샘물 같은 것 이어서 줄어들 念慮도 없어서 좋다. 지난 월드컵 때는 넓은 運動場에 둥근 蹴球공과 太極戰士들을 바라보며 수 많은 사람들이 목청껏 大韓民國!!!! 을 외쳐 대며 應援을 했다. 그러나 정작 自身의 마음속을 공처럼 둥그렇게 運動場처럼 넓게 갖겠다는 사람은 過然 얼마나 됐을까?

지난날을 보내며 孔子任이 싫어하는 사람 중 나는 어디에 該當하는 사람일까 혹은 各宗門에 宗事로 사소한 利益에 急急하여 相互間에 無謀한 煽動으로 不信, 不睦, 不和를 造成하여 祖上에 부끄럼이 없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反省해 볼 일이다.

중앙종친회 수석 부회장 김 상 용

## 아름다운 順天金氏 寶典 世蹟總覽

世蹟總覽 編纂委員들의 1년 동안 刻苦끝에 苦待하던 世蹟總覽을 完刊하여 8월 25일부터 頒帙할 예정입니다.

2006년 8월 10일

世蹟總覽編纂委員會  
委員長 金 昌 淵

# 順天金氏 大邱,慶北 明親會 (會長 金榮熙) 創刊號 發行 발간사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명친회가 발족된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서야 회보(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만사지탄의 감은 있으나 회원 여러분과 함께 흐뭇한 마음으로 자축하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 회원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길·홍사와 회원간의 동정, 미담, 생활정보, 종친행사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여 드림으로써 우리 명친회를 비롯, 순천김씨 종친간에 소속감과 일체감을 고취시켜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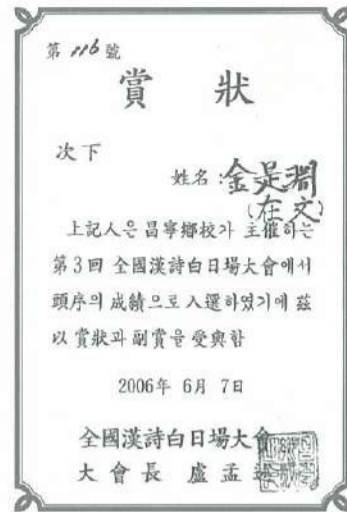
명친회 회원 여러분!

이번 발간하는 회보를 계기로 하여 우리 명친회원간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정이 넘치는 상부상조의 기풍이 더욱 굳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발행하는 관계로 내용이 부족하고 빈약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명친회 소식지가 일취월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명친회 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회원님들의 건강하심과 가내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6. 7.

명친회장 김 영 희 드림



## 全國 漢詩 白日場大會 入選 橫城公派 巴山門中 在文 宗親

夕盡牛旺忘得吾泛  
陽醉浦山機意輩舟泛  
偏月風樹白漁清洛舟  
照明光影鷺翁遊水洛  
古回畫波下歸第爽江  
今棹上中沙野一如賞  
愁返收倒洲渡流秋景

락수에 배 띄워두니 가을같이 시원하네  
우리들의 고상한 놀이 제일류로다  
뜻을 얻은 어옹은 시골 나무로 돌아가고  
근심 잊은 백로는 모래톱에 내려오네  
화왕상의 나무 그들은 파도속에 기우려졌고  
우포의 풍광은 그림위에 펼쳐졌네  
흥취해 달은 밝고 노를 돌려 돌아오니  
석양 편조하여 고금의 근심이로다



## 宗親會 活性化 方案의 摸索

어떤 團體의 모임이던지 재미가 있으면 많은 人員이 모이게 되고 재미가 없으면 수가 줄고 빈약한 團體가 되게 마련이다.

宗親會란 같은 氏族으로 일정한 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1개월 혹은 2개월 만에 한차례 모이는 특수한 團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團體와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地域支會의 구성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現代化된 社會에서는 젊은 世代들이 氏族 觀念이 희박(稀薄)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民主主義란 代議政治가 지방에까지 파급(波及)되면서 各級議會議員 및 團體長 選出을 기원하면 宗親 中에서 뽑고자 하는데서 多少 宗親會가 결속력(結束)을 얻게 되는 듯하다. 이런 예는 일시적 현상(現象)이라 하겠다.

根本的으로는 같은 祖上을 가진 血族으로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고 같이 슬퍼하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勞誼氣)로 가득 찬 宗親會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기에 宗親會가 유지 되어오고 산재한 宗親들이 多少 生活이 安定되고 時間의 여유(余裕)도 생기면 宗親會의 소재(所在)를 찾게 된다.

본인도 오랜 公職生活을 통해 奔走한

시절에는 宗親會에 關心이 없었으나 연만(連晩)해지면서 내 故鄕처럼 여겨지는 宗親會를 수소문해서 찾게 됐다.

釜山 宗親會의 경우 어떤 宗親께서는 數個月間 여러 곳을 찾아 헤매다 겨우 찾아 왔다고 고 월례회에서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경남 밀양에 산, 골짜기에서 축산(畜産)을 하는 한 宗親도 수소문 끝에 겨우 釜山 宗親會를 찾았다고 故鄕에 온 것만 양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가서는 월례회 때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는 비단 釜山 宗親會 뿐만은 아닐 것으로 짐작한다.

그 까닭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처음만난 宗親끼리 族譜상의 行列(行列)을 따지게 되는데 손자뿐이라던지 할아버지 뿐이라던지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대화중에 금시 하시(下視)하고 반말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상대에게 유쾌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된다.

둘째로 연회석상(宴會席上)에서 반주(飯酒)가 한두 잔 오고가면 대화가 거칠고 시끄러워진다. 성장 과정과 연령(年令)의 차이, 학식과 생활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용어사용(用語使用)과 예의(禮儀)를 갖추지 못하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해서 특별한 관계나 정이 얼켜있는 회원 외에는 권태(倦怠)를 느끼게 마련이다. 그래서 宗親會가 要緊하면서도 장, 노년층 소수가 지명하는 團體로 화하지 않는지 분석(分析)해 본다.

그렇다면 宗親會의 活性化 方案은 무엇일까? 에 대해 摸索해 보기로 한다.

첫째, 宗親일지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集會 때마다 會員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도록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가 人格적으로 친근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둘째, 회의 진행 때는 반드시 회의 법에 준한 회의 진행으로 질서가 있게 해야 한다.

셋째, 회부가 끝나면 가정 통신 순서를 마련해서 각 회원의 가정 소식을 듣는 것도 친근해지는 방법이다.

넷째, 전국 각지의 宗親會의 特異한 소식(宗報)을 통해 알려진 것이 있으면 소개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특히 族譜形 宗親의 人物史 등 宗報를 통해 소개되면 그 내용을 회의시 소개하는 것은 흥미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宗親 會員中에 專門職에 종사



# 제21기 대학생 하계교양강좌

## - 석호 김동영 원장의 행위예술(TERFORMANCE) 선보이다 -

김종식 회장의 개최사에 이어 특히 금년에는 식전 이벤트행사로써 대구 석호서예원 종친 김동영 원장께서 행위예술(TERFORMANCE)을 선보였다.

가로 5m 세로 30m의 대형지면(천)에 왕대필(1m50cm)을 사용하여 "崇祖精神"이라는 내용으로 온몸을 움직이면서 휘호를 하는 모습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동작을 연상케 하여 참관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마지막 "神"의 1획은 김종식 회장과 함께 합차게 내려 꽂아 모든 순천김씨 종친의 단합과 화합을 상징하여 이를 지켜본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행위예술(TERFORMANCE)은 일생에 몇번 행하지 않은 진귀한 예술의 극치이다.

嶺南 書畫界 元老 石湖 金東泳 先生  
大學生 夏季 敎養講座 特講



### 감상문

#### 1 김정훈 경북 문경시 모전동 (광운대학교 2학년 - 소프트웨어과)

일단 처음에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자기 뿌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굳이 순천까지 가야 만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대충하고 갈려고 했는데 같은 순천김가 어르신 분들, 대학 교수님, 또 석호 선생님들의 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나 순천의 지명의 변천과정과 三山二水나 八馬에 대한 설명, 우리 시조 김충 할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들, 음악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혼례 절차나 상례, 재례 같은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서 처음의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보다 적극적으로 강의에 임하게 됐다. 특히 첫날 석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대북으로 하는 행위 예술이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강의에 임했던 족보 보는 법, 또 그것을 배워서 스스로 족보를 찾아서 비록 내 이름까지는 없었지만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분들의 이름을 찾아 보았던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제 교양강좌도 거의 끝나가지만 정말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것 같다. 곧 대학생이 되는 친척들이나 이번에 못온 친척들한테도 꼭 다음에 가라고 추천하고 싶다. 끝으로 이런 강의를 마련해 주신 어르신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2 김진희 경북 안동시 태화동 (안동과학대 - 실내공간인테리어과)

순천김씨 대학생 하계 교양강좌를 배우면서 제가 몰랐던 많은 사실과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과연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양강좌를 듣게 되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양강좌를 처음 듣고 저의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 순천김씨에서 조상을 찾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고 그 동안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게 되었는지 알았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김충장군님께서 여기 성황신으로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순천김씨하면 김종서 장군님 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우리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고 훌륭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나태하게 살아 왔는지 새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순천김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이런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꼭 다시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 3 김현태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구보건대 - 안경과 졸업)

얼마 전 성인이 되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준비를 하면서 항상 마음한 구석이 허전한 찰나에 부친의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이번 하계 대학생 교양강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도와주시는 어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전에 이 교육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번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순천김씨 일가 중 이 교육

을 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서슴치 마시고 종친회를 통해 신청하고 교육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첫 번째의 방법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의 행함이 자신의 조상이 누군 줄 알고 조상이 어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순천김씨 최초의 조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함자를 쓰시는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첫 공부의 자리가 순천김씨 대학생 교양강좌라는 것을 저는 이번 교육에 임하므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는 교육이 딱딱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교육이 아닐까? 오는 친구들과 서먹서먹하지는 않을까? 갖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첫날 교육을 받으며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교육 후 여기온 친구들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보니 재미있고,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오고 싶은 곳인 것을 알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내가 느낀 점을 적고 제출하라고 하시는 간사님 말씀에 부끄럽지만 이 글을 마칩니다.

#### 4 김수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1동 (조선대 - 기계설계공학과 2학년)

한참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때 집안 어른들께서 족보를 다시 쓰신다며 바쁘게 움직이시던 때가 생각난다. 족보가 새로 나오자 할아버지는 우리를 불러 앉아 족보를 설명해주셨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만 신기했을 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할아버지가 종친회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생을 위한 대학강좌가 1년에 한번씩 열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촌동생 경모와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게 낯설고 언제 2박3일이 지나갈까 막막하기만 했다.

첫날밤부터 할아버지들께서 풍수지리, 제사 지내는 법, 절 하는 법 등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하고도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다. 우리를 위해 이벤트를 열어주신 석호 할아버지의 퍼포먼스.. 태어나서 처음 봤다. 퍼포먼스를 본 후 산에 올라가 묘역에 인사를 드렸다. 생김지가 좀 되었지만 처음으로 온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자 서먹서먹했던 2기들과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파를 들으며 첫날의 밤을 보냈다. 둘째날 아침은 묘역에 인사를 가는 것을 시작했다. 아침식사 후 할아버지님들과 초청강연을 들었다. 모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었지만 온통 새로운 내용들이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이렇게 뽀뽀 이런 귀중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걸 행운이라고..

우리 조상들에 대해 이제는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강의 마지막에 배운 족보보는 방법. 어렵게만 생각했던 족보 보는 방법이 이렇게 쉬웠지 몰랐다. 여기에 왔던 2박3일동안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을 배워간다. 3년후에 대학생이 될 동생도 꼭 보내고 싶다. 할아버지님들 귀중한 내용들 감사합니다.

#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6년 5월 ~ 2006년 8월 14일

## 고 문

- 1. 김명규 2006. 6. 26 울산광역시 신정동

## 이 사

- 1. 김상우 2006. 5. 26 서울특별시 면목동
- 2. 김인선 2006. 6. 1 경기도 고양시
- 3. 김동준 2006. 6. 8 충청남도 천안시
- 4. 김서연 2006. 6. 22 경기도 고양시
- 5. 김어연 2006. 6. 22 경기도 고양시
- 6. 김동학 2006. 6. 22 경기도 고양시
- 7. 김동욱 2006. 6. 22 경기도 고양시
- 8. 김상웅 2006. 6. 22 경기도 고양시

## 대 의원

- 1. 김현희 2006. 5. 30 전라남도 해남
- 2. 김해수 2006. 6. 2 부산광역시 남구
- 3. 김유환 2006. 6. 1 충청남도 부여군
- 4. 김승부 2006. 6. 1 전라남도 해남군
- 5. 김상울 2006. 6.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 6. 김세연 2006. 6. 22 경기도 파주시
- 7. 김동원 2006. 6. 22 경기도 파주시
- 8. 김상의 2006. 6. 28 경기도 고양시
- 9. 김동원 2006. 7. 31 서울특별시 구로구

## 회 원

- 1. 김공원 2006. 4. 26 광주광역시 서구
- 2. 김유동 2006. 4. 26 부산광역시 남구
- 3. 김장덕 2006. 4. 25 전라남도 해남군
- 4. 김동호 2006. 4. 28 서울시 송파구
- 5. 김한연 2006. 5. 2 서울시 동대문구
- 6. 김흥배 2006. 5. 10 인천광역시 남구
- 7. 김귀원 2006. 5. 9 전라남도 담양
- 8. 김수진 2006. 5.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 9. 김용훈 2006. 5. 29 서울특별시 은평구
- 10. 김경원 2006. 5. 30 서울특별시 도봉구
- 11. 김동현 2006. 5. 30 경기도 시흥시
- 12. 김영열 2006. 6. 1 강원도 횡성
- 13. 김동주 2006. 6. 1 서울특별시 동작구
- 14. 김광도 2006. 5. 29 강원도 양구군
- 15. 김동이 2006. 6. 1 울산광역시 북구
- 16. 김철희 2006. 6. 2 서울특별시 용산구
- 17. 김동철 2006. 6. 2 서울특별시 강서구
- 18. 김홍연 2006. 6. 2 경기도 성남시
- 19. 김도균 2006. 6. 2 강원도 원주시
- 20. 김태현 2006. 5. 30 전라남도 해남군
- 21. 김봉래 2006. 5. 30 강원도 정선군
- 22. 김학수 2006. 5. 30 경상북도 문경
- 23. 김동철 2006. 6. 2 대구광역시 북구
- 24. 김인상 2006. 6. 2 충청남도 보령
- 25. 김정수 2006. 6. 2 경상북도 경주
- 26. 김승걸 2006. 6. 2 경상북도 안동
- 27. 김 명 2006. 6. 5 경기도 양주
- 28. 김동한 2006. 6. 5 경기도 안산시
- 29. 김계연 2006. 6. 5 경상북도 영주시
- 30. 김병달 2006. 6. 7 서울특별시 송파구
- 31. 김중권 2006. 6. 7 경기도 김포시
- 32. 김동석 2006. 6. 5 경기도 김포시
- 33. 김동국 2006. 6. 7 경기도 고양시
- 34. 김상휴 2006. 6. 7 경기도 안양시

- 35. 김용석 2006. 6. 2 경상북도 의성군
- 36. 김동범 2006. 6. 2 경상북도 안동시
- 37. 김중돈 2006. 6. 8 경기도 시흥시
- 38. 김종열 2006. 6. 5 전라북도 진안
- 39. 김순수 2006. 6. 9 서울특별시 성북구
- 40. 김길영 2006. 6. 9 서울특별시 반포동
- 41. 김중익 2006. 6. 7 전라북도 임실
- 42. 김남술 2006. 6. 7 전라남도 해남
- 43. 김종해 2006. 6. 7 경상북도 안동
- 44. 김쌍철 2006. 6. 8 경상북도 포항
- 45. 김남수 2006. 6. 9 경기도 연천군
- 46. 김방운 2006. 6. 9 경상북도 포항
- 47. 김기현 2006. 6. 9 광주광역시 북구
- 48. 김동욱 2006. 6. 9 부산광역시 연제구
- 49. 김강원 2006. 6. 9 전라북도 익산시
- 50. 김진오 2006. 6. 12 강원도 삼척시
- 51. 김인식 2006. 6. 12 충청남도 보령시
- 52. 김성희 2006. 6. 12 경기도 파주시
- 53. 김일환 2006. 6.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 54. 김기남 2006. 6. 15 인천광역시 서구
- 55. 김병철 2006. 6. 15 부산광역시 영도
- 56. 김천환 2006. 6. 15 대구광역시 북구
- 57. 김준희 2006. 6. 16 전라북도 임실군
- 58. 김동운 2006. 6. 16 경상북도 문경시
- 59. 김취천 2006. 6. 20 경기도 수원시
- 60. 김병혁 2006. 6. 21 부산광역시 영도구
- 61. 김동석 2006. 6. 21 경상북도 성주시
- 62. 김춘식 2006. 6. 23 인천광역시 거수
- 63. 김규식 2006. 6. 23 충청남도 연기군
- 64. 김기석 2006. 6.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 65. 김윤수 2006. 6. 26 서울특별시 노원구
- 66. 김병열 2006. 6. 23 경기도 이천시
- 67. 김동규 2006. 6.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 68. 김경영 2006. 6. 29 경기도 동두천
- 69. 김동삼 2006. 6. 28 경기도 하남시
- 70. 김수락 2006. 6. 26 경상북도 예천군
- 71. 김동규 2006. 6.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 72. 김상복 2006. 6. 28 전라남도 순천시
- 73. 김동필 2006. 6. 29 서울특별시 강동구
- 74. 김범배 2006. 6. 29 인천광역시 강동구
- 75. 김동수 2006. 7. 6 대구광역시 동구
- 76. 김동근 2006. 7. 14 고양시 덕양구
- 77. 김무원 2006. 7. 18 전라남도 해남군
- 78. 김중오 2006. 7.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 79. 김경주 2006. 7. 26 경기도 고양시
- 80. 김기환 2006. 7. 28 경북 문경시
- 81. 김상용 2006. 8. 7 인천광역시 계양동
- 82. 김종선 2006. 8. 7 경상북도 안동시
- 83. 김상민 2006. 8. 7 경기도 안성시

## 무 명 인

- 1. 2006년 5월 30일 서수원 새마을금고
- 2. 2006년 6월 1일 외환은행/연회동 지점
- 3. 2006년 6월 7일 우리은행/대치역
- 4. 2006년 6월 7일 새마을금고/의왕
- 5. 2006년 6월 12일 농협/고양저동지점
- 6. 2006년 6월 12일 서울축산농협/문암동지점
- 7. 2006년 6월 29일 외환은행/연회동지점
- 8. 2006년 6월 29일 농협/풍향동지점
- 9. 2006년 6월 30일 구성농협/연원지점
- 10. 2006년 7월 31일 국민은행/금촌중앙지점
- 11. 2006년 7월 27일 농협/웅천지점

## 動 靜



## 當 選

京畿道 道議員  
**金輔淵**  
 (경기 고양시)

慶北 聞慶市 市議員  
**김지현**  
 (경북 문경시)



꿈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 꿈은 얼마나 큰 행복으로 자랄까요?

우리는 그 꿈이 자라 행복으로 클 때까지

믿음이라는 인내가 필요함을 압니다

믿는 만큼  
큰 행복이 기다려요!

믿는 만큼 행복하다!

이것이 한화의 믿음입니다

